

# 국산 약재

## 수입산보다 주성분 함량 높다

안동대 정형진 교수팀 국산·외국산 식물약재 비교연구 결과

황기, 시호, 백지, 산수유, 하수오 백출등 국산 약재 주성분 함량이 수입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 우수성 측면에서 국산 생약재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안동대학교 정형진 교수팀에 의해 조사된 '국산·외국산 식물약재 비교연구' 논문 결과에 따르면 국산 재배 시호가 중국 연길 안국 길림지역에서 수집된 재배시호 보다 사이코사포닌 a, c, d 함량이 높았고, 특히 사이코사포닌 c함량이 중국에서 수집한 시호종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산 야생백출이 수입백출에 비하여 조사된 성분 β-Selinene, Valecene, atractylone의 성분이 매우 높았고, 중국에서 수집한 백출의 경우 주성분으로 알려진 atractylone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한국 야생의 22% 미만으로 조사됐다.

하수오도 한국재배 원종자 추출물은 주성분인 crysophanol, physcione, emodin과 rhein의 함량이 중국 재배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에서 검출되지 않은 physcion과 emodi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하수오(좌측)가 가늘고 울퉁불퉁한데 비해 수입산(우측)은 굵고 편편하다.

한편 길경의 경우 중국 연길 안국 길림지역에서 수집된 길경 상품의 경우 국산보다 총 사포닌 함량이 약 2~3배 높은 반면 하품은 국산 보다 사포닌 함량이 약 6~7배 낮게 나타나 수입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하품의 품질차에 따라 함량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산 천궁, 당귀의 경우 주성분인 리구스틸라이드 공분해생성물인 부티라이텐 프티라이드 함량이 우리나라 재배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재 수입시 유통과 저장상의 문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6면〉

정형진 교수팀은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16가지 주요

식물 약재 가운데 작약이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약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는 약재는 당귀, 황기, 천궁, 두충, 길경 순으로 나타났다. 백지, 향부자, 시호, 천마, 산약 등은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반면 지황, 하수오, 백출, 산수유, 사삼 등은 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 토종약재 34종 멸종된 듯

소회향, 석창포등 80년대 이후 거래중단

소회향 석창포등 34종에 달하는 토종약재가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의 멸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한약 2호"에 소개된 '수입한약재가 국산한약재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단에 따르면 대구 한약도매시장이 개방된 80년대 당시 1백20여종의 한약재가 상장됐으나 현재 80여종으로 줄었으며 특히 34종의 국산약재는 수입약재와의 가격경쟁에 밀려 멸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34종의 국산한약재는 △구맥 △여정실 △초롱담 △자초 △선퇴 △소회향 △창이자 △조협 △인동초 △누로 △백질여 △지부자 △백편두 △위령선 △과인루 △마도령 △삼능 △조각자 △해표초 △향유 △청목향 △백미 △백모근 △석창포 △초오 △편축 △소태실 △촉백 △영신초 △고련피 △가구자 △포공영 △백두옹 △흑축등이다.

특히 이들 34종 약재중 소회향, 청목향, 석창포, 백질려, 삼릉 등은 종자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며 약초시험장 시험포장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나머지 28종도 값싼 수입산의 영향으로 채취 인건비 조차 건지기 힘들만큼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자연 채취량도 감소, 지금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IMF라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한약재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생약농업육성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야생화 종자시장 급속확대 조경용등 관심높아져 업체 속속 진출

야생화등 자생식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자업체들이 야생화등 자생식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우리꽃과 잔디를 이용한 조경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식물원을 중심으로 자생식물 보급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화분용 꽃과 이끼등 지피식물을 분양하는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또 매출액 10억원이 넘어 기업화 단계에 이른 곳도 10여군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도로변 환경 미화용으로 수입잔디 및 화훼류 대신 야생화를 보급하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종자업체 가운데는 서울 종묘가 억새, 비수리, 띠, 자운영 등 초본류와 싸리, 낭아초, 담쟁이, 산오리, 자귀, 찔레 등 목본류를 녹화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속

부쟁이, 마타리, 벌노랑이, 파랭이, 떨부처꽃 등 12종류 이상의 야생화 종자를 섞은 <우리꽃 야생화 혼합 세트>를 벌크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 회분함량 25~35%는 '녹용 중품'

기존의 녹용이 앞으로는 회분함량 25%이하는 '녹용'으로 25.01%이상 30%이하는 '녹용중품'으로 표시, 저장되어 유통된다.

또 회분함량 35.01%를 초과하는 하대 부분은 부적합품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녹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채취시기가 앞당겨져 양질의 녹용만 생산, 유통이 가능케 되고 지금까지 소비자가 환의사나 한약 판매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명칭만 보고도 품질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용·녹용중품 규격기준 등을 개정.고

시 하고 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녹용 규격기준 중성상내용이 길이가 90cm까지로 되어 있고 골질화된 아랫 부분까지 포함시켜 회분함량을 25%이하로 규정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었던 데다 털이 밀생한 녹용과 털이 없는 녹용으로만 구분.유통되어온 결과 회분함량을 개정된 상태에서 25.01%이상 35.0%이하 녹용은 녹용도 아니어서 적용상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었다.

### 수입녹용 검사기관 변경

수입녹용의 품질검사기관이 5월 1일부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바뀐다.

이달부터 수입녹용 품질 검사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바뀐 것은 다른 모든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반해 한약재인 녹용만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복령 가공식품 개발

경북 농진원, 음료, 식빵 등 7종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인 복령을 첨가한 음료수와 식빵, 과자가 개발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농촌진흥원은 경북대 농산물가공 기술연구소와 2년간 연구 끝에 복령이용 가공품으로 복령추출액을 이용한 음료수 3종, 복령가루를 첨가한 식빵과 과자등 모두 7종의 제품을 개발했다.

복령가루를 첨가한 식빵과 과자는 외형이나 맛에서 시중 유사제품과 거

의 차이가 없는 반면 재료원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로 제품들 보다 싸 가격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령혼합음료는 신세대 청소년들을 겨냥해 배과즙과 복령 추출액을 절반씩 첨가했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료는 복령추출액 99.5%, 솔잎진액 0.5%를 혼합했다. 또 노년층을 위해서는 복령추출액 50%에 인삼액 20%, 숙지황액 30%를 넣은 제품을 선보였다.